

葯窓 朴燁論

－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

이승수*

1. 문제제기
 2. 가혹하고 교활한 관리상, 역사의 기록
 3. 권력에 희생된 변방의 인재, 야담의 형상
 4. 섬세하고 다정한 풍류 시인, 일상의 증언
 5. 박엽의 재평가를 위하여
- 참고문헌

1. 문제제기

1623년 3월 군사행동이 있었다. 군대를 일으킨 자들은 목적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행위를 反正이라고 했다. 후대에 이 사건은 仁祖 反正으로 일컬어진다. 인조반정은 정치 지형도를 일거에 뒤바꿨다. 반정 세력은 권력을 쥐었고, 자신들의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역사 서술의 권능도 함께 차지했다. 과거에 대한 기록은 승자, 또는 뒤에 남은 자의 권능이자 책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합목적성과 필연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반대로 거기서 어긋나는 것들은 罪惡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배제했다. 인조반정의 정당성은 정교한 이념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 오래도록 유지·강화되었다. 그 권위 속에서 이들이 지은 역사의 진실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았다. 문제

* 한양대학교 강사.

는 그 주술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별 저항을 받지 않고 관성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념의 주술을 풀어냈을 때, 우리는 역사의 숨겨진 진실들을 만날 수 있다.

朴燁(1570~1623)은 인조반정으로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다. 광해군의 인척인 데다 당시 평안감사로 군권을 지녔던 박엽은, 거사 직후 제거 대상 1호로 꼽혀 임지인 평양에서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죽임을 당했다. 반정 세력은 박엽을 청산해야 할 舊惡의 표상으로 지목했고, 구시대의 많은 不淨을 그에게 전가하여 자신들이 갈 새 길을 반듯하게 닦으려 했다. 舊惡으로 분류된 박엽의 죄상이 크면 클수록, 새 세력의 정당성은 반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권력의 붓끝에서 박엽은 역사의 죄인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반정 직후의 공식적인 논평은 물론, 국가 공식의 역사기록인 『인조실록』에 묘사된 박엽은 가혹하고 탐학한 부패 관료의 전형이다. 이것이 박엽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면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엽과 관련해서는 여러 층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들은 주류 권력이 미처 통제하지 못한 감시망의 사각에서 발생되었거나, 여항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이념적 긴장감이 느슨해진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보관되다가 역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개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여러 층위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층위에 따라 기록 내용이 상반되거나, 최소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 기록으로 고형화 된 박엽의 모습이 해체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중 역사 기록과 상반되는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 해석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야담, 가까운 벗들의 일상 증언과 수창 詩, 그리고 본인이 남긴 시문 등의 기록들은 권력의 그물망으로부터 누락되고 방기된 것들

이다.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으로 권력의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역사가들로부터 사료 가치를 외면 받아온 것들이다. 논자는 최근 仁祖反正 전후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성격이 이념적인 도식의 지배를 받고 있어 본래 실상과는 괴리가 있으며, 때로 그 괴리는 층위가 다른 기록들로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¹⁾ 박엽은 그중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 사안에 역사 기록과 다른 증언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풍부하고 일관성을 띠고 있다면, 역사의 실상을 온당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증언들은 학문적으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논자는 이 글에서 박엽에 대한 제 기록을 통해,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폄하된 그의 역사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반작용의 운동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사 기록과 민간 야담의 상보적 대화 가능성, 일상의 기록과 시문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개진될 것이다. 논의는 권력의 공식 역사 기록을 먼저 살핀 뒤, 이어 야담과 주변의 증언, 그리고 박엽 자신의 시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았다. 이는 오랜 세월 권력이 빚어내고 고착시킨 거대 담론의 허위성을 덜어내고, 역사의 주변으로 몰려 있던 민중들과 개인의 진실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 논의가 박엽과 인조반정에 대한 재평가, 나아가 문학과 역사의 소통 논의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자기 정당화의 욕구에 사로잡힌 권력은 인물 평가에 있어, 한쪽을 과도하게 포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가혹한 폄하하는 대립 구도를 낳았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이나 시대의 역사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연구자들은 그 거리를 조절하여 실상에 가깝도록 복원해야 한다. 논자는 「죽음의 수사학과 권력의 상관성」 『대동문화연구』50,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06)을 통해 과도한 포양에 내재된 허위를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반대로 가혹한 폄하에 담겨있는 허위를 벗겨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가혹하고 교활한 관리상, 역사의 기록

朴燁의 字는 叔夜이고 호는 葯窓이며, 본관은 潘南이다. 증조부는 조광조의 문인인 朴紹(1493~1534)이고, 조부는 목사를 지낸 應川(1516~1581)이며, 부친은 참봉 東豪(1549~?)이다. 두 차례 혼인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은 각각 橫城 趙進과 文化 柳德新(1548~1617)의 딸이다. 유덕신의 다른 딸은 세자 시절 광해군의 빈으로 간택되었으니, 광해군과 박엽은 사적으로는 동서간이 되는데, 이는 박엽의 일생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두 차례 모두 결혼 시점은 알 수 없다. 박엽은 두 부인과의 사이에서 후사를 보지 못했고, 측실 소생으로 아들 하나만을 두었다. 측실 소생 또한 후사를 보지 못했으니, 사실 박엽의 혈통은 바로 아랫대에서 절손된 셈이다.²⁾

박엽은 1597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다. 문과 출신의 문관이었지만, 주로 군사 관련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널리 무인의 모습으로 각인되었다.³⁾ 실록에서 박엽의 이름은 1601년 형조 정랑에 제수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다. 이후 그는 刑曹 正郎·司諫院 正言·成均館 直講(이상 32세), 해남 현감(35세), 평양 서윤(36세), 평산 부사(39세) 등의 내외직을 거쳤는데, 이 기간의 官歷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평범한 관리 생활에 일대 전기가 된 사건은 1608년 2월 광해군의 등극이다. 이 해 8월 박엽은 평산부사로 있다가 陞敍했고, 이어 황해병사(40세)·

2) 이상의 가계 정보는 박엽의 당질이 되는 朴世堂(1629~1703)이 1683년 편찬하여 간행한 『潘南朴氏世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3) 1611년 박엽이 함경남도병사로 임명되었을 때, 李好民은 박엽이 文望으로 발탁된 것임을 밝혔다.(「送南道兵使朴燁詩序辛亥秋」, 『五峯集』 권7) 하지만 1614년 8월 광해군은 박엽을 장흥부사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내리면서 武人으로 호칭하였다. 박엽의 관료적 성격은 문인 출신으로 군사 업무에 탁월했던 김종서와 유사하다.

황주목사 겸 병마사(41세) · 함경남도병사(42세) · 의주부윤(44세) · 성천부사(46세) 등을 거쳐, 1618년 9월에는 평안감사에 제수되었다. 1618년은 명의 요청으로 後金 정벌을 위한 군사를 모집하는 등, 서북 방면의 동향이 긴박할 때였다. 이후 박엽은 1623년 3월 인조반정 직후 처형될 때까지 4년 6개월 가량 평안감사로 일선에서 對明 및 對後金 외교를 주도했다. 광해군은 등극 이후 일관되게 박엽을 서북, 특히 평안도 지역의 군사 및 행정 업무를 전담시켰다.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평안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광해군이 박엽을 심복으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이 기간 박엽의 이름은 실록에 300차례 가까이 등장한다. 이중 탄핵을 받았거나 사신으로부터 부정적인 논평을 받은 기사 건수의 비율은 1/3에 가깝고, 분량으로는 절반을 훨씬 상회한다. 실록의 평가만 놓고 볼 때 박엽은 매우 貪虐한 酷吏의 전형이다. 박엽이 처음 탄핵을 받은 때는 해남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1604년 3월이다. 사헌부에서는, 박엽이 세금의 일부를 착복하여 유용하였고, 또 친족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貪汚狡猾의 이름으로 탄핵하여 파직을 요청했다. 선조는 사헌부의 탄핵을 아무 이의 없이 수용했다.⁴⁾ 선조에게 있어 박엽은 일개 무명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광해군대에 들어서면서 사정은 사뭇 달라졌다. 광해군대에 박엽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격렬하고 집요한 탄핵 세례를 받았다. 광해군은 그때마다 완강하게 박엽을 비호하며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부결시켰다.⁵⁾ 박엽의 탄핵 국면을 확대해보면, 권력을 둘러싼 광해군과 신료집단 사이의 예사롭지 않은 긴장과 대결이 감지된다.

4) 『국역선조실록』 37년 3월 18일 조. (*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민족문화추진회 이지, 이하 같음)

5) 단 한번의 예외는 있었다. 1612년 사헌부에서는 함경남도병사로 있던 박엽이 가혹한 형벌로 인심을 잃었다면 파직을 요청했는데, 광해군은 이례적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1609년 11월 광해군은 築城과 貯糧의 공로를 인정하여 박엽을 아산부사에서 황해병사로 승진시켰고, 加資를 하명했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연 사흘에 걸쳐 加資를 반대하였으나 광해군은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⁶⁾ 박엽에 대한 탄핵이 극심했고, 이에 맞서 광해군의 비호가 초긴장 상태로 대립했던 시기는 1615년 9월에서 1616년 9월에 이르는 1년간이었다. 이 시기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40차례에 걸쳐 박엽의 삭직을 요청했으나, 광해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박엽을 비호하였다. 1615년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잇달아 상소를 올려, 의주부윤 박엽을 탄핵했다. 포악하여 무고한 백성을 무수히 죽였고, 실정으로 국경 요새의 방비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10월에 사간원에서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박엽의 관직 삭탈을 요청했다. 이에 광해군은 풍문은 믿을 수 없고 박엽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推考만 명하거나 아예 요청을 기각시키고 말았다.⁷⁾

박엽을 둘러싼 신료들과 광해군의 대치 정국은 1616년 7월 14일 광해군이 박엽을 성천부사로 제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삼사에서는 포학 잔혹하다는 이유로 박엽의 삭직을 청했다. 이에 광해군은 박엽이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다가 원망을 사는 것으로 옹호하면서 부결시켰다. 사헌부와 사간원도 물러서지 않고, 8월 1일에서 9월 9일에 이르기까지 무려 36차례에 걸쳐 상소하여 삭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끝내 9월 19일 박엽을 성천부사로 부임하게 하였고, 29일에 따로 불러 백성들을 너무 엄히 다스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으로 대치 국면을 종결지었다. 박엽에 대한 광해군의 비호나 삼사의 배척 태도에는, 일개 관리의 무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자존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6) 『국역광해군일기』 원년, 11월 9일, 22 ~ 24일 조.

7) 『국역광해군일기』 7년 9월 25일 ~ 10월 24일 조.

8) 『국역광해군일기』 8년 7월 14일 ~ 9월 29일 조.

이 국면이 일단 광해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박엽의 입지 또한 강화되었다. 1619년 1월 巡按御史 李昌廷의 탄핵을 당한 박엽은 상소하여 스스로 해명했다. 이를 보다 못한 승정원이 나서 박엽을 탄핵했다. 이에 따르면 박엽이 술한 죄를 짓고도 교만한 것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라며, 박엽을 ‘미친 애승이’와 백성을 해치는 ‘기생충’이라고까지 극언했다. 박엽은 임금의 측근 기관인 승정원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아마 여기에는 그간 입지가 한층 강화된 박엽의 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병중이던 광해군은 이때에도 啓辭의 내용이 지나치다며 불문에 부쳤다.⁹⁾ 이러한 일련의 국면들은 광해군과 박엽 사이의 밀월 관계를 고착시켰다. 이로 인해 박엽의 권력 입지 또한 한층 강화되었지만, 이는 결국 박엽이 인조반정 이후 즉각 죽임을 당하는 계기가 된다.

1619년 3월 深河戰役의 패보가 전해지면서 박엽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조정에서는 갑론을박 속에 세월을 보내며 많은 업무를 평안감사 박엽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박엽은 後金과 明의 사신을 접대하고, 조선의 패전 상황 및 포로 소식을 수집해야 했다. 1621년 후금이 遼陽을 함락한 뒤에는, 밀려드는 明 遺民들의 처리와 椴島에 주둔하고 있던 毛文龍 軍의 정세 탐지도 평안감사의 소관 업무였다. 그 와중에서도 박엽에 대한 탄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619년 7월 조정에서 파견한 潘藥 金繼賢이 죽은 사건 때문에 사헌부에 박엽의 과직을 건의했다. 박엽은 사직 상소를 올려 강경한 눈조로 자신을 탄핵한 대간을 비판했다.¹⁰⁾ 이에 다시 正言 安應魯가 박엽을 천하의 악종으로 일컬으며 引避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도리어 박엽을 탄핵한 李偉卿과 인피한 안응로를 나무라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후 박엽에 대한 탄핵은 다시 없었다. 신료들과의 의견 충돌 속에 위태롭게 명과 후금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이끌어가던

9) 『국역광해군일기』 11년 1월 11일 ~ 1월 22일 조.

10) 박엽, 「辭平安監司疏」, 『葯窓遺稿』 권 2.

광해군에게 있어서나, 변방 실무에 어두웠던 비변사와 사헌부 등의 신료들에게 있어서도 박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623년 3월 12일 밤 거사에 성공한 반정 세력은 13일 綾陽君을 추대했고, 즉각 비밀 리에 사신을 파견하여 평양에서 박엽을 체포하고 심문과 재판 과정 없이 絞殺했다. 반남박씨세보에는 박엽이 죽은 날짜를 3월 17일로 기록하고 있다. 박엽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경위는 실록에 나와 있지 않고, 『속잡록』에 전해진다. 여기 따르면 당시 밀지를 받은 도원수 韓浚謙(1557~1627)은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평양성 留防別將 등과 상의하여 외적이 침입하여 곧장 의주로 떠나야 하니 군사들은 즉각 普通門에 모이라는 군령을 하달했다. 이에 모인 군사들을 거느리고 풍악에 빠져있던 박엽을 급습하여 체포한 뒤, 성밖 私家에 구금했다가 교살하고, 길거리에 나가 다시 처형했다. 박엽의 시신은 원한에 사무친 백성들에 의해 훼손되어 거의 남아나지 않았다고 한다.¹¹⁾ 기록대로라면 박엽은 긴급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되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즉결재판에 의해 처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인척에다 군권을 지녔으며 才局이 뛰어난 박엽을 두려워하여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거했던 것이다.¹²⁾

이후 박엽은 탐욕스럽고 패악하였기 때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처형된 인물로 역사에 각인되었다. 뒷날 실록의 편찬자들은 박엽에 대해 사사건건 부정적인 史評을 달았다. 반정의 정당성이 고착되면서 박엽은 거명조차 금기된 인물이 되었다. 1707년 숙종이 옥당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박엽이 잠시 거론되었다. 이 자리에서 趙泰億(1675~1728)은 박엽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했다가 질책을 받았다.¹³⁾ 이 일로 조태억은 두 차례 削職과 遞職을 요청하는 상소

11) 조경남, 『속잡록』 권 2, 계해년 조 (『국역대동야승』 권 31, 제 8책).

1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려실기술』 권 23, 「仁祖朝故事本末」(제 5책 522쪽).

를 올리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¹⁴⁾ 1728년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은 홍계일은 李有翼이 평소 임격정(林巨正)과 朴燁을 숭배했다고 진술했다.¹⁵⁾ 박엽은 임격정과 같은 도적으로 코드화되었던 것이다. 권력의 공식 입장이 파급된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박엽에 대한 반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다. 아래는 박엽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李植(1584~1647)의 언급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수호전』을 지은 사람의 3대가 귀머거리가 되어 그 응보를 받았다고 한다. 도적들이 그 책을 존승했기 때문이다. 허균과 박엽은 그 책을 좋아하여, 賊將들의 별명 하나씩을 차지하여 서로 부르며 장난을 치곤 했다. 허균은 또 『수호전』을 본떠 『홍길동전』을 지었고, 그의 무리인 서양갑과 심우영 등이 그 행동을 실천하다가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허균 또한 반역죄로 주살되었으니, 이는 귀머거리 응보보다 더 심하다.¹⁶⁾

박엽과 허균을 한 부류로 묶어, 『수호전』을 좋아한 두 사람은 도적이 되어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했다. 허균은 1618년 역모죄로 처형되었다. 허균과 박엽은 물론 『수호전』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드러나는 글이다. 인조반정 이후 박엽의 역사적 위상은 광해군과 허균, 심지어는 임격정 등과 함께 悖惡의 인물로 자리매김 되었다. 박엽은 죽고 나서 241년이 지난 1864년이 되어서야 신원된다.¹⁷⁾

13) 『숙종실록』 33년 7월 6일 조.

14) 국사편찬위원회 탈초,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7월 12일 조.(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홈페이지)

15) 『국역영조실록』 4년 5월 1일 조.

16) 이식, 『택당선생별집』 권 15, 「散錄」. “世傳作水滸傳人, 三代龔啞, 受其報應, 爲盜賊尊其書也. 許筠朴燁等, 好其書, 以其賊將別名各占, 爲號以相諠. 筠又作洪吉同傳, 以擬水滸, 其徒徐羊甲, 沈友英等, 躬蹈其行, 一村齏粉, 筠亦叛誅, 此甚於龔啞之報也.”

17)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7월 11일 조.

3. 권력에 희생된 변방의 인재, 야담의 형상

역사 기록에 나타난 박엽의 죄목을 간추리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悖倫,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虐政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失政, 서도의 방비에 소홀하여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1619년 深河戰役에서 보급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가지 죄목은 반정 세력이 내세운 광해군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상통한다. 박엽이 평양에서 처형된 다음날인 1623년 3월 18일, 인조는 새로 평안감사에 제수된 金薰國(1572~1657)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요로인 평안도를 맡기는 뜻을 말했다. 이에 김신국은 그간 박엽의 폭정과 방비 소홀로 서도가 적의 유린을 받아 도탄에 빠져있었는데, 앞으로 仁政을 펼치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여, 문제의 원인을 박엽에게로 돌리는 동시에 유가적 다스림을 강조했다. 인조는 김신국에게 서도 방비의 전권을 위임했다.¹⁸⁾

하지만 역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는 다르게 흘렀다. 조선은 1627년(後金)과 1636년(淸)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침입을 당했고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淸軍은 두 차례 모두 압록강을 건너 서도를 통해 침공했고, 평안도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극심한 참화를 겪어야만 했다. 김신국의 호언과는 달리 반정 세력은 정권을 잡은 지 불과 4년 만에 兵禍를 초래했던 것이다. 인조 정권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해나갔다. 국내의 불만을 淸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시키는 이데올로기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고, 전쟁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배 세력은 별다른 권력 누수 없이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패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다. 백성들은 공식적으로는 부득이

18) 『인조실록』 즉위년, 3월 18일 조.

모든 잘못과 책임이 오랑캐[淸]에 있다는 권력의 입장에 서면서도, 사적으로는 은밀하게 권력층에 실정의 책임을 물었다. 설화와 야담 등 비공식 담론들은 우리들에게 당시의 은밀한 여론의 동향을 들려 준다. 이 과정에서 言衆이 주목한 인물 중의 하나가 朴燁이다.

박엽이 인조반정의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집중적인 지탄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관료 생활을 통해 탁월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築城과 量田 등 군사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보였다. 1612년 戶曹에서 박엽을 호남의 量田使로 추천하면서 “재국(才局)이 매우 민첩하고 산법(算法)에 밝아 양전의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자”¹⁹⁾라 한 말이나, 1619년 深河戰役의 패배 이후 복잡한 외교 업무를 일선에서 전담한 것 등이 그의 비범한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박엽의 능력은 평안도라는 공간과 군사 및 외교 업무에서 잘 발휘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도 급격한 정치 변동의 와중에서 심문 한번 받지 못하고 비밀리에 죽어갔다. 박엽 죽음의 배경에는 권력 쟁투가 있었고, 그는 티끌만큼도 자기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급작스런 죽음은 여러 의혹과 억측을 낳기 쉬운 법이다. 비범한 인물과 의문에 쌓인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외교정책의 실패가 만나는 지점에 언중들의 흥미가 가세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흥미와 상상력의 힘으로 빚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역사 기록의 그물망에서 누락된 사실들이 있고, 사실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 묻어있다.

박엽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야담 중 가장 이른 것은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談』이다. 유몽인은 자기보다 11살이나 적은 박엽의 일화를 네 편이나 소개하였다. 『어우야담』 속의 박엽은 어린 시절 하룻저녁에 240리를 가고, 25살 청년 때는 처녀 귀신과 정을 나누고 그 일가의 시신을 수습해주었다. 역시 젊었을 때

19) 『광해군일기』 4년 윤 11월 9일 조.

남편을 속여 미모의 여인과 사통하고, 함경남도병사 시절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試官을 골탕 먹인다. 네 이야기에 나타난 박엽의 성격을 간추려 모으면, 그는 비범하고 재기가 넘치나 때로 장난이 지나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이다.²⁰⁾ 미약하긴 하지만 異人의 면모가 나타나는 『어우야담』 속 박엽의 형상은 조금씩 변형되며 후대의 야담집에 거듭 수록된다. 유몽인과 박엽 사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알 수 없지만, 후배 관료를 보는 유몽인의 시선에서 특별한 혐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결과론이지만 역시 인조반정에 희생된 유몽인에 의해서 박엽이 소개된 것도 일종의 奇緣이다.

박엽 사후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대체로 당시 긴박하던 後金과의 관계를 역사적 배경으로 깔고 있다. 그 중 몇 편을 소개해본다.

[1] 박엽이 10년간 관서의 도백으로 있으면 일을 전임하니 위세가 사나웠다. 매양 연광정에 앉아 대동강 건너 언덕 행인들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강가 10리 숲에 사람들이 감히 말을 타지 못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이를 어겼기에 박엽이 크게 화내며 잡아오게 하여 꾸짖었다. “너는 얼마나 대답하기에 감히 내 앞을 범하였느냐?” 그는 사죄하며 말했다. “시골 한미한 선비가 사체를 알지 못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삼가 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조금 문자를 아니 시를 지어 죄를 속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엽이 운자를 부르자 곧바로 응답했다. “백 자 높은 다락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 중원에 왕의 기운 나날이 쓸쓸하네. 서생은 백발에도 마음은 씩씩하니, 해질녘 강가에서 큰 칼에 기대었네. 百尺高樓送目遙, 中原王氣日蕭蕭. 書生白髮心猶壯, 落照江天倚大刀.” 당시 청나라 오랑캐가 遼陽과 瀋陽 사이에서 병란을 일으켰기에 그것을 읊은 것이다. 박엽은 시를 보고 칭찬하며 갓을 내려주게 하고 상좌에 앉힌 뒤 기너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했다. 그가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남아가 어찌 자잘한 잔으로 마실 수 있습니까?” 박엽이 큰 걸로 바꿔주게 하자 또 사양하며 말했다. “존공께선 이걸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엽이 “얼마만해야 하나?” 묻자, “몇 잔

20) 신익철, 이형대 외 옮김, 『어우야담』(돌베개, 2006)의 99번, 143번, 399번, 422번 이야기 참조.

크기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박엽이 장하고 괴이하게 여겨, 늦쇠 사발에 紅霞酒를 가득 부어 올리게 하자 그제야 기뻐하며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하고는 손을 들어 마시려다가 다시 멈추고는 말했다. “酒禮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찌 주인은 아니 마시고 손님 혼자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엽 또한 주량이 컸는데, 안 마시면 알보일까 잔을 당겨 먼저 마셨다. 반쯤 기울이자 술잔의 윗부분이 이마 위 얼굴을 가려 밖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살짝 일어나 밖으로 나가 말을 몰아 달아났다. 박엽의 분부가 없었던지라 하인들은 말리지 못했다. 한 사발 술을 마시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다 마시고 났을 때 이미 그의 종적은 없었다. 박엽이 탄식했다. “저가 마시지 않고 나 혼자 마시게 함은 나를 벌 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결코 이처럼 나를 희롱할 사람이 없으니 淸人이 틀림없다.”²¹⁾

[2] 박엽은 將略이 있었다. 천문과 지리 奇偶와 術數에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광해군의 동서로 관서백이 되어 10년 간 체직되지 않았다. 北虜는 그의 威勢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다. 하루는 술과 안주를 갖추어 幕客을 불러 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中和 땅 駒峴 아래 가서 기다리면 반드시 말을 몰고 지나가는 두 건장한 사내가 있을 것이다. 내 말로 ‘너희들이 비록 우리나라를 왕래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행역이 괴로울 테니 술과 안주를 보낸다. 한번 배불리 먹고 취한 뒤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하라.” 막객이 그 말대로 전하자,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낮빛을 잃으며 말했다. “神人 장군 앞에 우리들이 어찌 감히 다시 오리오.” 술을 마시고는 곧장 떠나갔다. 이 두 사람은 龍骨大와 馬夫大로,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허실을 탐지하였는데, 혹은 承政院의 常隸가 되어도 사람들은 모두 그 정체를 몰랐지만 박엽만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²²⁾

[3] 광해군은 박엽의 능력을 알아보아 발탁하여 평안감사로 삼았다. 그

21) 具樹勳(1685~1757), 「朴燁十年西伯專事」[『野乘』 제 29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원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 있음.] 비슷한 내용이 『閒居雜錄』에 「葯窓早慧」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1책 (계명문화사, 1992)]

22) 『奇聞叢話』(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6책). 이 책에는 모두 네 편의 박엽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같은 내용이 『我東奇聞』과 『靑邱叢話』에도 보인다.

때 만주족의 변란으로 西路에 사건이 많았다. 박엽은 재략이 있어 광해군이 믿고 중용하여 10년이나 바꾸지 않았다. 박엽은 재물을 이용한 反間計에 능하였다. 순찰하다가 龜城 땅에 이르렀는데 마침 淸兵이 성을 포위하였다. 한밤중에 한 호인이 성을 넘어 박엽의 침소에 와서 귓속말을 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박엽은 사람을 시켜 술을 가지고 호병을 호쾌하며 긴 소고기 꼬치를 만들어 군졸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남거나 모자람 없이 군졸들의 수에 꼭 맞았다. 호장은 크게 놀라 귀신이라고 여기고 곧 강화하고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癸亥年間에 박엽의 비장 한 사람이, 조정이 장차 무너지면 공은 주상의 총신이니 함께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몰래 청과 화친을 맺어 조정에 일이 생기면 땅을 받아 할거하면 자유로이 운신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엽은, “나는 文官이다, 어찌 叛臣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며 듣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곧 박엽을 버리고 떠나갔다. 얼마 안 있어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바로 사신을 보내 대동강변에서 박엽을 효수하였다.²³⁾

세 편 이야기는 모두 만주족이 무서운 힘으로 부상하고 있던 상황을 역사 배경으로 한다. 의지만 있었다면 지리적으로 그들의 거점과 인접한 조선에서 그 동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밖으로는 전적으로 明에 의지하고 안으로 정치를 혁신하지 못한 조선 조정은 국제정세에 까맣게 어두웠다. 세 편 이야기에선 공히 당대의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우의가 담겨 있다. 하지만 평안감사로 오래 변방 업무를 맡았던 박엽만은 후금의 동태와 허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무런 외적 표지가 없음에도 그가 지은 시 한 수만으로 淸人임을 간파하고([1]), 조선에서 간첩 활동을 하던 龍骨大와 馬夫大를 굴복시키며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했다([2]). 언중들의 상상력은 두 사람이 원래 박엽의 수하였다가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淸에 귀부한 것으로까지 나아갔다. 龍骨

23) 심재, 『松泉筆譚』 利卷 (정명기, 앞의 자료 제 19책). 『鷄鴨漫錄』 등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박엽을 떠나간 사람을 龍骨大와 馬夫大로 소개하였다.

大와 馬夫大는 조선 침공 당시 선봉에 섰고 이후에 對朝鮮 관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3] 또한 후금의 허실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랬기에 그들의 내침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박엽이 전쟁의 와중에서 희생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병자호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권력이 일방적으로 박엽을 부패하고 무능한 叛臣으로 몰아간 반면, 언중들은 ‘박엽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 기록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빚어진 것이다.

언중들의 상상력은 더 치달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냈다.

[4] 박엽에게 아끼는 기녀가 있었다. 하루는 물었다. “너는 나를 따라 가서 대단한 구경을 하겠느냐?” 밤이 되자 박엽은 스스로 청류마를 끌고 안장을 갖추어 탄 뒤, 기녀를 앞에 태웠다. 명주 끈으로 그녀의 허리를 묶어 자기 몸 위에 매고서는, 눈을 감게 하며 말했다. “눈을 뜨지 말아라.” 채찍질을 하자 두 귀에 바람소리만이 들렸다.

한 곳에 이르자 눈을 뜨고 보게 했다. 광막한 들판에 구름 같은 장막이 하늘에 이어지고 등불이 휘황했다. 기녀로 하여금 장막 안 坐板 아래 엎드리게 하고는, 자기는 상 위에 앉았다. 잠시 뒤 징소리가 울리더니, 胡騎 천만이 땅을 밟으며 달려왔다. 한 대장이 칼을 쥐고 장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웃으며 말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과연 왔소이다.” “그렇소.” “오늘은 칼을 시험하여 자웅을 가리는 게 좋겠소.” “좋소.”

박엽은 칼을 쥐고 상 아래로 내려가 胡將과 평원 위에서 맞섰다. 둘 모두 베는 자세를 취했다.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은 흰 무지개로 변하더니 공중으로 솟구쳤다. 칼 부딪치는 소리만 들리더니 잠시 후 호장이 땅에 떨어졌다. 박엽은 공중으로부터 날아 내려와 호장의 가슴에 걸터앉아 물었다. “어찌하겠소?” 호장은 숨을 몰아쉬고는 사죄하며 말했다. “지금부터 다시는 우열을 다투지 않겠소.”

박은 웃으며 일어나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술을 청해 서로 마셨다. 호장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하더니, 올 때처럼 앞뒤로 웅위되어 떠나갔다. 몇 마장 못 미쳐 포성이 한 번 울리더니 허다한 호병들이 줄지어

말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덮었는데 호장 한 사람만 남았다. 호장은 다시 와서 목숨을 빌었다. 박엽은 머리를 끄덕여 돌아가기를 허락했다. 이에 기녀를 불러 말에 태우고 올 때와 같은 모양으로 돌아왔다. 여기가 바로 金나라 汗의 아버지인 누르하치(魯花赤)가 무예를 닦는 곳이다. 호장이 곧 그 사람인데 수만 기병이 한 번에 모두 불타 죽었다고 한다.²⁴⁾

이 이야기는 자못 서사적인 구성을 갖추었는데, 서사의 내용은 모두 환상성 짙은 허구이다. 서사의 축은 박엽과 누르하치(1559~1626)의 대결이다.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걸쳐 대결을 거듭해온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사건은 절정 및 결말에 해당한다. 두 사람은 모두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박엽이 기녀 한 사람만 데리고 수만 기병을 거느린 누르하치를 상대하고, 검술 대결 끝에 누르하치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점에서, 둘 사이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後金의 창업자이자 두 차례나 조선을 침공한 청 태종의 아버지인 누르하치와 박엽을 라이벌 관계로 설정하고, 둘을 대결시켜 박엽의 승리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위 이야기는 자못 상징적이다. 이야기의 배면에는 박엽이 살았다면 淸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과 박엽을 죽인 반정 세력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崇明排淸의 이념으로 경화된 조선후기 사회에서 이런 생각은 공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되지 못하고, 억압되고 굴절되어 여항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던 것이다.²⁵⁾

이밖에 後金 관련 내용이 아닌 이야기에서도 박엽은 대개 점술과 천기에 밝은, 예지력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박엽은 큰 액

24) 『記聞叢話』 권 2 (정명기 편, 앞의 자료 제 6책 93,94쪽).

25) 지배층이 淸나라를 극단적으로 배척했던 것과는 달리, 여항에서의 對淸 인식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누르하치와 청태종도 야담에서는 친근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였으니, 鄭忠信(1576~1636)과 누르하치를 오랜 친구처럼 묘사한 『我東奇聞』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이다.

운에 처한 재상 아들을 호랑이에게 보내 목숨을 구해주었고, 인조 반정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具仁屋에게 붉은 천 서른 바리를 주어 거사 날 밤 표식으로 삼게 하였다.²⁶⁾ 한편 後金에게 활용해야 하는 智謀가 백성들에게로 향해 해악을 끼치는 이야기들도 있다. 딸의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를 위해 백성들을 속이고²⁷⁾, 어릴 때 천 사람을 죽여야 자기 명을 다할 수 있다는 술가의 말을 믿어 酷刑을 일삼고 백성들의 송사에 수수께끼 題辭를 내어 풀지 못하는 아전들을 濫殺한 이야기²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야담에서의 박엽 형상은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 하나는 酷吏 또는 刑名家의 모습이고,²⁹⁾ 다른 하나는 탁월한 전략가의 모습이다. 역사 기록은 전자를 확대하여 강조한 반면 후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야담은 역사 기록이 누락시키거나 외면한 부분에 흥미를 집중했던 것이다.

한편 시대가 흐르면서 명망 있는 사대부들도 박엽에 대한 묘한 호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李宜顯(1669~1745)은 종조부가 어린 시절 죽을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박엽에게 변론하다가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들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엽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죽이고 살리는 데도 유효한 기준이 있었음을 말하였다.³⁰⁾ 박엽의 宗人인 朴弼周(1665~1748)는 한 시에서 박엽이 죽은 뒤 속

26) 두 이야기는 『記聞叢話』와 『我東奇聞』, 그리고 『靑邱叢話』 등에 실려 있다.

27) 심재, 『松泉筆譚』 利卷.

28) 『醒睡叢話』 권 下 (정명기 편, 앞의 자료, 제 17책).

29) 申暲(1696~1766)은 한 편지에서 박엽을 商鞅이나 申不害 같은 刑名家로 분류하고 있다. (『直菴集』 권 6, 「上伯氏」).

30) 이의현, 『陶谷集』 권 27, 「雲陽漫錄」. “曾王考之爲箕城少尹也 朴燁爲監司 逞其兇虐 從祖寺正公年九歲 與小童遊戲大同門樓上 燁過其下 小童倉卒未及下 燁立命斬之 從祖往見燁曰 小童之不得下樓 實緣與我遊戲 非渠之罪 乃我罪也 願貸其死 燁即執從祖手曰 汝爲巧人命 不憚觸我威怒 汝誠奇矣 汝前途必遠矣 吾當爲汝貸之 卽命赦之 仍厚給筆墨等物 稱道不已 從祖以童孺之年 不畏虓虎之暴 一言而脫人於死外 黃兒蓋不足專美 而燁之快許縱舍 亦可見其有殺活手段矣.”

수무책으로 침공당한 역사의 아픔을 읊었다.³¹⁾ 그리고 이 시의 주에서 박엽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병자호란 당시 淸陣에서 “박엽이 있었다면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제시하였다. 박필주는 박엽의 처형은 인정하되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음을 살짝 밝혔던 것이다.³²⁾ 李德懋(1741~1793)도 박엽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후금이 조선을 침범하지 못한 것은 박엽의 힘 덕분이라고 했다.³³⁾ 蔡濟恭(1720~1799)은 李忠伯을 평양의 大俠으로 立傳한 바 있다. 이충백이 박엽의 애첩을 범하고 달아났다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진 출두했는데, 박엽이 그의 의로운 기개와 장사다운 행동을 높이 사 살려주고는 막하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주요 사건이다. 이 작품에서도 박엽은 예의 刑名家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인재를 알아보았으며 또 인재에 관대했던 비범한 인물로 그려졌다.³⁴⁾ 이러한 기록들은 야담에 속하지는 않지만, 야담과 비슷한 시선으로 박엽의 인간상을 포착하고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야담의 기록들은 대체로 권력 쟁투의 희생자인 박엽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그의 군사 및 외교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정묘·병자 양 호란을 겪은 이후, 인조반정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과 박엽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권력 또는 권력의 일방적인 역사관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셈이다. 이후 박엽에 대한 평가는 양 극단의 사이를 오갔

31) 박필주, 『黎湖集』 권 2, 「平壤感懷」. “天設有如此, 人工亦壯哉. 城臨千仞壁, 水遠百尋壘. 突騎至無覺, 元戒表可哀. 千年法首月, 尙說禦虜才.”

32) 위와 같은 곳. “... 以此見之, 則可謂之有功, 而與彼凶賊混被誅戮, 是則冤矣. 然其好殺成性, 正犯嚴母之戒, 雖欲免得乎? 或謂李完豐曙具綾川仁屋, 皆經幕裨, 受杖致憾, 以致於此, 不詳是否. 自爲義州府尹時, 能網得虜酋動靜, 以至爲監司, 十年在西, 威讐塞外. 丙子之亂, 虜相謂曰, 朴燁若在, 吾不得來, 可見其爲虜所憚也.”

33)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청장관전서』 제 53권, 「耳目口心書」 6.

34) 채제공, 『樊巖集』 권 55, 「李忠伯傳」.

다. 야담의 기록은 생각보다 강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기록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해오고 있다. 박엽에 대한 평가는 인조반정의 역사적 성패, 구체적으로는 인조 이후 對外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어 있어, 무언중에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4. 섬세하고 다정한 풍류 시인, 일상의 증언

박엽은 武人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본은 문과 출신이며 시에도 능했다. 가깝게 교류한 인물들 중에는 문인 관료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문집에는 박엽과 수창한 시가 여러 편 남아있다. 이들 시는 박엽과의 친밀한 관계나 동질성 속에서 나온 것들로,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박엽과 역사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포착된 모습은 특정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의 작지만 구체적인 진실을 담고 있어, 한 인물의 역사상을 재구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된다. 한편 박엽은 그 자신의 詩名도 높았다. 불명예스럽게 죽었고 자손이 없어 시문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몇몇 詩話는 박엽의 시를 인상 깊은 작품으로 거론하였다. 또 산일된 그의 시문은 후대에 수습되어 두 권의 필사본으로 간행되었다.³⁵⁾ 소략하지만 이 또한 박엽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본 절에서는 동시대 개인 문집의 관련 기록 중, 특징적인 몇 국면을 제시하여 박엽 이해의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시문으로 박엽과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인물은 柳夢寅(1559~1623), 許筠(1569~1618), 梁慶偶(1568~1638), 李安訥(1571~1637), 趙希逸(1575~1638), 車天輅(1556~1615), 李好閔(1553~1634) 정도이다. 당대 박엽의 위상으로 보아 교류의 폭과 흔적이 적은 것은 그의 불

35) 필사자 및 년도 미상의 『葯窓遺稿』 2권 1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행한 마지막 때문일 것이다. 梁慶偶는 統營에 從事官으로 부임하는 박엽을 전송하는 시를 지었는데, 박엽이 유년시절부터 詩才가 있었으며 관리로서의 재능과 글솜씨가 뛰어남을 말했다.³⁶⁾ 또 주를 달아 자신이 박엽과 同年임을 밝혔다.³⁷⁾ 李好閔(1553~1634)은 1607년 평산부사 부임을 전송하는 시 1수와 1611년 함경남도병사 부임을 기리는 서문 1편을 지어 박엽의 앞길을 격려했다.³⁸⁾ 車天輅는 1611년 함경남도병사 부임을 전송하는 시 세 수를 남겼는데 시상이 굳세고 씩씩하여 볼 만하다. 세 수 중 하나만 소개한다.

남아라 일개의 서생 되기 부끄러워	男兒恥作一書生
변방에서 십만 명 병사들을 거느리네	獨擁邊頭十萬兵
문자로는 영웅 사업 감당치 못하지만	文字不堪雄事業
활과 칼론 공명을 세울 수가 있도다	弓刀自可樹功名
붓 내던진 宗愨 사연 들은 지 오래이고	久聞宗愨曾投筆
오라를 칭하였던 終軍을 웃었노라	却笑終軍但請纓
선춘령 찾아가서 조각 비석 찾아보면	試向宜春看片石
영웅호걸 이름을 윤공만이 차지할까	尹公寧得擅豪英 ³⁹⁾

변방의 군사책임자로 부임하는 장수의 의기를 북돋아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작품이다. 5,6구의 宗愨과 終軍은 모두 문인 출신으로 軍

36) 양경우, 『霽湖集』 권 7, 「送朴從事叔夜名燁 赴統營八韻」. “篠驂相識自童兒, 澗絮山英已好詩. 萍迹幾憐無竝蒂, 桂花非分忝連枝. 青雲器業君專美, 白首風塵我已知. 草檄只應須逸翰, 佐邊誰道枉明時. …… 少時同遊兩山下 公有澗絮欺春雪 山英冒雨燃之句 故句及之 與余同年 故有桂花非分之語.” 박엽이 통영에 부임한 관력은 실록에 나와 있지 않다. 洪直彌이 지은 「朴燁傳」에 따르면, 1597년 과거급제 이후 統制營에 종사하며 업무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박엽의 관력이 실록에 처음 나오는 때가 1601년이니, 그가 통제영에서 근무한 시기는 1598~1609년 사이이다.

37) 양경우와 박엽은 각각 1568년과 1570년생으로 알려져 있어, 이렇게 말한 전말이 의문이다.

38) 이호민, 『五峯集』 권 3의 「送平山府使」와 권 7의 「送南道兵使朴燁詩序」.

39) 『五山集』 권 2, 「送葯窓朴叔夜以元戎赴威鏡南道」 其 1.

功에 큰 뜻을 두었던 인물이다.⁴⁰⁾ 7,8구에서는 1108년 尹瓘이 북쪽 경계에 9城을 쌓고 선춘령에 그 안이 高麗嶺이라는 내용을 새겨 비석을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고, 그러한 공업을 도모하라고 격려하였다. 이 시의 내용이 상투적 수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이의 공감이나 의기 상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박엽 또한 그런 응지를 품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박엽은 42세 한참 장년에 함경남도병사로 부임하였다.

박엽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의 하나는 허균이다. 1606년 허균이 원접사로 명 사신 朱之蕃 일행을 맞이할 때, 박엽은 平壤庶尹으로 사신 접대 업무에 간여하였다. 허균은 당시의 체험을 일기체 기행문으로 남겨놓았는데, 두 사람은 여러 날을 한 방에서 묵을 정도로 가까웠다.⁴¹⁾ 당시 박엽은 허균의 침소에 허균과 인연이 있는 妓女를 들여보냈고, 또 싫다는 허균을 술자리에 붙들어놓으려고 집요하게 붙잡았을 정도로,⁴²⁾ 좋게 보아 두 사람 사이는 허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은 그 이전 젊었을 때부터 교분이 있었다. 허균이 1593년 「鶴山樵談」을 지으면서 한 항목을 두어 박엽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묘하다. 박엽의 시 다섯 편을 소개했는데, 그 어조가 다분히 악의적이다. 기사의 처음과 끝은 아래와 같다.

근세 선비들은 禮를 병으로 여기고 다만 虛無를 말하고 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수레를 타고 태연히 거리를 나돌아 다니며 조금도 거리낌이

40) 宗愨은 남북조시기 宋나라 사람으로, 어렸을 적 숙부가 품은 뜻을 물었을 때 “願乘長風，破萬里浪.”이라 대답한 걸로 유명하다. 뒷날 뜻대로 洮陽侯에 봉해졌다. 終軍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나이 스물에 황제에게 “오라를 주면 南越王 매어 끌고 오겠다.”고 호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5구의 投筆은 한나라 班超에 관련된 고사로 宗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당나라 王泚의 「滕王閣序」에 나오는 “有懷投筆，慕宗愨之長風.” 구절의 심상을 묶어서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41) 허균,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성소부부고』 권 18, 「丙午紀行 상」.

42) 허균이 1606년 2월과 5월 친구 李再榮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 그러한 사연이 나와있다. 『국역성소부부고』 권 21의 「與李汝仁」 참조.

없는 이가 있는데 엄숙하고 단아한 선비조차 이에 물들었다. 요즘 叔夜 朴燁이라는 사람이 있어 詩文을 잘하나 불행하였다. 기생집[秦樓]에서 나의 글씨 솜씨와 시법을 보고 본떠 가는 곳마다 벽에다 써대었는데 뒷사람이 와 보고는 으레 이를 아무개 글씨라고 하였다. …… 詩格이 나와 비슷하며 字畫은 분간할 수 없어 진짠지 가짜지 사람들이 정말 의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가 화류가에 드나든단 소문을 얻게 되었으니 우습다. 옛 사람이 찻집[茶肆]·술집[酒坊]에도 도리 상 들어가지 않았거든 하물며 이보다도 더한 기생집일까? 西晉 말 선비가 淸談을 숭상하자 五胡가 중국을 어지럽게 했고, 唐이 망할 무렵 세상 풍속이 풍류를 즐기자 七姓이 爭立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겹쳐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행일 뿐이다.⁴³⁾

여기 따르면 박엽은 예법을 지키지 않고 허무를 말하면서 자주 기방을 출입하였으며, 더구나 허균의 詩法과 筆體를 흉내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허균을 곡해하게 하였다. 허균은 이러한 박엽의 행위를 두고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까지 극언하였다. 1593년이면 임진왜란의 와중으로, 박엽은 등과하기 전 전란을 피해 전전할 때였으니, 허균이 이를 두고 薄倖이라 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균은 박엽의 시문 솜씨를 인정하였으며, 시를 다섯 수나 소개하였다. 다섯 작품은 『약창유고』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료 가치가 높다. 다섯 수 중 네 작품이 남녀간 情詞이다. 「傷春曲」(7월)과 「殘春」(5월)은 돌아오지 않는 입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심사를, 「題月殿」(5월)은 巫山 仙女와 楚 襄王의 雲雨 고사를 소재로 삼았다. 모두 香奩 분위기가 짙은 작품이다. 나머지 짧은 두 수는 직접 보기로 한다.

백옥 빛 화관에다 무지개 치마 입고
바둑알 집어 든 채 생각에 잠기었네
여러 해 지나도록 돌 놓지 아니하니

白玉花冠素霓裳
手拈棋子費思量
經年不下神僊著

43) 『국역성소부부고』제 3책, 288~290쪽.

아마도 선경에는 세월이 긴가보네
「題仙子障」

想是蓬萊日月長

파랑새 날아와서 비단 글자 전해주니
안개 속 광한궁에 옥소 소리 울리누나
꽃다운 선동 여인 마음으로 다 아노니
풍류객 허시중을 웃으며 가리키리
「仙洞謠」

靑鳥翩翩錦字通
玉簫吹煙廣寒宮
情知洞裏如花女
笑指風流許侍中

「題仙子障」은 신선이 바둑 두는 그림의 족자를 두고 지은 것이다. 그림 속의 한 신선이 바둑알을 들고 생각에 빠져있는데, 정지태인 그림의 장면이 속계와는 차원이 다른 선계의 시간 질서를 부여하는 숨씨에 재치가 넘친다. 「仙洞謠」는 허균의 분노(?)를 산 작품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仙洞으로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妓房을 미화한 것이다. 이곳의 기녀에게 누군가 戀書(錦字)를 보내왔는데, 이를 받아본 여인은 편지를 보낸 주인공이 허시중 즉 허균임을 알고 미소 짓는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시를 박엽이 지었다면, 여기에는 분명 허균을 기롱하는 뜻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허균이 박엽에 대해 부정적으로 극언한 것은 이러한 장난에 대한 복수의 뜻이 아니었을까? 예법을 지키지 않고 허무를 입에 올렸다 함은, 뒷날 허균이 자처한 삶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허균이 박엽의 시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점이나 뒷날의 친분으로 보아, 이 글에 보이는 허균의 어조에는 다분히 희롱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박엽은 최소한 규범에 얽매인 선비는 아니었으며, 일탈적인 기질 면에서 허균과 상통하는 점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題仙子障」에서는 그의 넘치는 기지를, 「仙洞謠」를 비롯한 나머지 네 수의 시에서는 그의 섬세한 여성적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박엽의 일화에 妓女가 자주 등장하고, 그 자신 好色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상통하는데, 이를 푸는 것 또한

박엽 이해의 한 관건이다.

李安訥도 젊었을 때부터 박엽과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다. 그의 문집에는 1596년 박엽의 집에서 자고 난 새벽에 지은 시 두 수, 1602년 박엽이 서장관으로 赴燕할 때 지어준 시 한 수를 비롯하여, 박엽과 관련한 시가 13수나 실려 있다. 시를 통한 교류의 흔적은 1613년에 끝난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1613년경에 지은 「瀛洲夢爲朴叔夜承旨作」 5수이다.⁴⁴⁾ 첫 수 아래에 “오향은 제주 기녀인데, 박군이 그 명성을 듣고 노래를 부탁했다. 吳香 濟州妓也 君聞其美而請爲詞.”는 주를 달아, 이 작품이 박엽의 청에 의해 지어진 것임을 밝혔다. 박엽은 제주도에 吳香이라는 名妓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만나보기를 원했고, 그 사연을 노래로 지어달라고 이 안눌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다섯 수는 모두 감미로운 戀語 情韻인데, 둘째와 넷째 수를 소개한다.

영주 선녀 곱다는 소문을 잠시 듣고	瀛洲仙子暫聞名
밤마다 그를 만나 운우정 나누노라	雲雨陽臺夜夜情
봄이 와서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곳	寄語春來魂斷處
발에 꽃잎 날리고 제비 빗겨 날으리라	落花簾幕燕飛輕

남으로 간 붉은 까치 어느 날 돌아올까	丹鵲南飛幾日廻
옥소 소리 끊어지고 달님만 저가누나	玉簫聲斷月徘徊
어젯밤 봄바람에 관가 매화 피었으니	春風昨夜官梅發
선랑이 바다 건너 온 것은 아닐런지	忽訝仙娘海上來

둘째 수는 소문만 듣고도 밤마다 오향과의 雲雨樂을 꿈꾸는, 가끔은 한낮에도 달콤한 꿈에 젖어 있다가 깨어보면 꽃잎 날고 제비

44) 『東岳集』 권 10, 「錦溪錄」. 「금계록」은 이안눌이 1611년 錦山 군수에 제수되어 1613년 10월 경주 부윤으로 옮겨갈 때까지의 작품집이다. 박엽은 均田使로 파견되었다가 1612년 12월 승지에 제수되어 1613년 11월 의주부윤으로 옮겨졌다.

나는 현실로 돌아오는, 박엽의 대책 없는 戀情을 놀린 것이다. 넷째 수는 오향을 그리는 마음을 붉은 까치에, 오향의 소식이 온 것을 매화가 핀 것으로 비유한, 은은한 운치가 넘치는 절품이다.⁴⁵⁾ 문제의 핵심은 이 시들의 예술적 성취가 아니라,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박엽의 여성 취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소문만 듣고 바다 밖에 있는 기녀를 간절하게 그리며 그 사연을 노래로 지어달라고 하는 박엽의 행태는 확실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그는 당시 군주를 지척에서 모시는 承旨의 몸이었다. 이는 풍류 넘치는 다정함과 퇴폐적인 이상정서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분명한 건 박엽의 이런 측면을 반정 세력은 이를 후자 쪽으로 몰고 가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있어 이러한 행위는 얼마든지 호의로, 즉 사대부의 풍류로 해석될 수 있었고,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 일변도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는 것은 곤란하다. 「학산초담」에 소개된 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일단 역사 기록의 평가에 쫓리지 않으면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박엽이 섬세하고 다정한 풍류객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박엽 자신의 신상 발언을 들을 차례이다. 박엽이 자신을 자평한 기록은 없다. 다만 50여 편의 시와 약간의 산문을 남

45) 참고삼아 나머지 세 수의 시도 소개한다.

1. “채란의 성씨에다 이름은 향이어니, 영주에서 첫손꿈는 아가씨라 말들 하네. 옥안을 보기도 전 꿈에서 먼저 보니, 금성의 공자 지닌 홀륭한 풍류일세. 彩鸞家姓更名香, 道是瀛洲第一娘. 未見玉顏先結夢, 錦城公子好心腸.”
2. “만 리 밖 선산 이름 한 글자 전해지니, 얼굴을 맞대야만 참된 인연 아닐러라. 틀림없이 뒷날 밤 그리운 꿈을 꾸면, 달 모양 둥그럴 때 날아 바다 넘으리라. 萬里仙山一字傳, 未應顏面是真緣. 分明後夜相思夢, 飛渡滄瀛月正圓.”
3. “피꼬리 소리 듣고 고운 노래 떠올리고 버들가지 보고선 가는 허리 상상하니, 머리를 깎아 내린 열다섯 미녀로다. 비바람에 흠는 살구꽃과 배꽃처럼 하얀 달빛, 이 모두 봄날 밤에 애간장 끊게 하네. 鶯想歌聲柳想腰, Y鬢十五玉嬌嬌. 杏花風雨梨花月, 摠是一春腸斷宵.”

겨놓고 있어 이해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박엽은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남아있는 시만으로도 미학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앞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박엽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시 세 수만 살펴보기로 한다. 홍만중은 『小華詩評』에서 박엽을 시재가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 예로 아래 두 수의 시를 들었다.⁴⁶⁾

가을 지나 남녘 와서 봄 되어 북쪽가다	秋盡南歸春北去
무정하다 시냇가의 그물에 걸렸구나	溪邊羅網忽無情
태수의 소반 위에 음식으로 올랐으니	來充太守盤中物
이로부터 구름 사이 소리 하나 줄겠지	從此雲間減一聲

노래 소리 목이 메고 거문고는	
저랑하여 헤어지기 어려운데	歌低琴苦別離難
변방 나무 검푸르고 새외의 물은 차네	隴樹蒼蒼隴水寒
나는야 저 설산과 여기에 남으리니	我與雪山留此地
그대는 석양 따라 서울로 가시게나	君隨西日向長安

문집에서 위의 작품에는 「安岳 使君의 주석에 기러기 요리가 올랐는데, 문득 지나가는 기러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의 일을 시로 읊으라 청하기에 즉석에서 붓을 달렸다」는 긴 제목이 달려있다.⁴⁷⁾ 일종의 즉흥 戲作으로, 그윽한 미감을 자아내는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온 기러기 소리와 쟁반 위의 기러기 요리의 관계를 재미있게 설정한 데서 機智가 번뜩인다. 아래 작품에는 「北靑送沈子順」이란 제목이 달려있다. 沈子順은 沈誦(1569~1644)이다. 1611년 4월에서 1612년 9월 사이 함경남도병사

46) 안대희 옮김, 『對校譯註 小華詩評』(국학자료원, 1995) 305, 306쪽.

47) 『葯窓遺稿』 권 1, 「安岳使酒席供鴈, 忽有過鴈聲聞, 請以卽事成詠, 應口走筆」. 홍만중은 박엽이 벼슬에 오르기 전에 지은 시라고 소개했는데, 정황상 1607년 평산부사에 부임한 후, 아니면 1610년 2월에서 1612년 4월 사이 황주목사 겸병사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시절에 지은 작품으로, 이별 연회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노래 가락이 낮게 깔리고 거문고 연주 처연하며, 변방의 나무는 검푸르고 물이 차가운 것은 모두 이별의 아쉬움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상황이 이별 자리를 더욱 무겁게 한다. 이 시의 첫 구절에 대해서는 詩魔에 들린 것이라는 당대의 평가가 있었다.⁴⁸⁾ 머무는 자신을 雪山과, 떠나는 사람을 夕日과 동일시한 표현도 절묘하다. 雪山은 보내는 이의 황량한 마음과 의연한 자세를, 夕日은 이별 자리의 쓸쓸한 정서를 표상한다. 박엽은 어려운 고사를 사용하여 시어를 단련하거나, 시상을 세련되게 유지 않으면서도, 쉬운 표현으로 주변 상황과 사람의 심정을 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논자의 판단으로, 그것은 그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총명함과 밖의 세계와 깊이 교감하는 섬세한 정서를 지니고 있었던 때문이다.

아래 시는 1623년 정월 보름날 평양 法水橋에 지은 것이다.

평안 감사 한대에 그치고 마나	一代關西伯
법수교는 천 년의 세월을 가네	千年法水橋
오늘밤 등글게 뜬 저기 저 달도	只應今夜月
끝내는 가여운 밤을 지으리	終作可憐宵

제목은 「癸亥正月踏法水橋」이다. 죽기 두 달 전에 지은 것인데, 뒷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詩讖이라 말하곤 했다.⁴⁹⁾ 자신은 권세로 한 시대를 떨치고 있는 평안감사요, 날은 풍요를 상징하는 정월대 보름인데, 박엽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허무 내지 뒤이어 올 쇠락을 감지했다. 예감대로 풍요로운 보름달이 뜬 그날 밤은 박엽에게는 끝내 다시 오지 못하는 슬픈 밤이 되고 말았다. 詩讖說이야 결과를 두고 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실상 박엽은 反正의 기운이 무르익어

48) 남용익, 『壺谷漫筆』[홍찬유 옮김, 『시화총림』(통문관, 1993) 1002쪽].

49) 『逸事奇聞』(『국역대동야승』 제14책).

가는 그때,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 삶의 슬픈 마지막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자기 삶의 결말을 암시하는 이 시는 박엽의 예민한 감성을 보여주며, 이는 넘치는 총명과 기지로 사람을 속이거나 도와주고 後金の 침략 기도를 농락한 야담 속 그의 형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박엽의 재평가를 위하여

이제까지 세 층위의 기록으로 박엽을 조명하였다. 1623년 3월 13일 거사의 성공으로 인조반정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 정당성은 이후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았다. 인조반정에 대한 의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주변부 소수자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조선시대 인조반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뜻했으므로 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은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러한 관성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역사 기록을 통해 주류 권력의 가치관이 고착된 결과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엽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루어진 바 없다. 박엽에 대한 재평가는 곧 인조반정에 대한 재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胡亂 이후 흥미와 호감 속에 박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다. 본고는 시대와 계층에 따라 국가의 역사 기록과 상반되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야담을 주목하여 처음으로 박엽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인물을 이해하는데, 야담이나 사사로이 지어진 詩文들이 역사기록에 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가? 현대 역사학은 이 문제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푸코는 진리와 지식을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배적 담론은 불일치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

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하고, 또한 그것에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푸코에게 텍스트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배담론과 저항 담론의 권력이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인 것이다. 텍스트로서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과거의 편린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깝고 널리 인정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을 구성한 역사가들이 비판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와 미래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과거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역사 해석과 구성은 담론적 방식으로 벌이는 권력 투쟁의 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⁵⁰⁾

비공식 기록의 사료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식 역사 기록의 내용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역사 기록에서 절대 진리의 짐을 얼마간 덜어내고, 그만큼 설화와 야담 및 개인 기록 등 주변의 작은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작은 별빛들이 보이지 않고, 큰 목소리가 지배하면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는 법이다. 실록만을 과학적인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고, 야담은 흥미 본위의 문학으로 치부하여, 하나의 사안에 두 자료를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면 편협하고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는 그랬지만 문학에서는 이랬다는 식의 결론은 곤란하다. 역사는 문학작품을 사료로 활용해야 하고, 문학 연구는 역사학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박엽에 관한 여러 층위의 기록이 있고, 이 기록들은 모두 박엽에 관한 일면의 진실을 감추고 있으며, 때로 그 자료들의 입장과 태도는 시대와 계층, 또는 지역에 따라 갈등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려 한 노

50) Evans, Richard, *In Defense of History*. New York : Norton, 2000, 169쪽, [하상복, 「닥터로우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 공간」, 『현대영미소설』 11권 2호(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04) 7쪽에서 재인용.]

력의 소산이다.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사실 그러한 입장과 해석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하나로 귀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건 한 인간의 내부에서도 언제나 복잡하게 작용한다. 박엽 사후 137년 뒤에 태어난 威海應 (1760~1839)은 그런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박엽에 대한 두 편의 짧은 글을 남겼다.

[5] 박엽은 광해군의 友婿이다. 계해년 반정 소식을 박엽은 미리 들었지만 김자점이 宿怨으로 그를 죽였다. 그의 재주를 꺼린 것이기도 하다. 평양 사람들은 개성 덕물산의 최영 사당에서처럼 이제껏 매우 공경스럽게 박엽을 제사지낸다. 그의 초상화가 후손에게 있는데, 키는 작고 얼굴 모습은 부인과 같은데, 눈빛이 사람을 노려보아 오래도록 보지 못한다. 그 집 안에서 그림을 벽에 널 때마다 자손과 종들 중에 꼭 아픈 사람이 생긴다.⁵¹⁾

[6] 박엽이 관서의 도백으로 있을 때 深河戰役의 패전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다. “연평령 넘어 창성 땅인데, 살기 하늘 이어지고 고각소리 울렸어라. 패전한 말과 군사 돌아오지 못하는데, 석양만 끝도 없이 큰 강에 빗겨구나.” 비문과 감상의 뜻이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심하전역 당시 군량미를 관서에서 운송해야 했는데 보급하지 못했다. 군사들은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오랑캐 마을에서 움집에 숨겨둔 곡식을 파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그 일이 이민환의 일기에 전한다. 누가 박엽에게 재능이 있다고 했는가! 관서에 재임한 10년 동안 한갓 刑殺로 위엄을 세운 것이니, 박엽이 일찍 죽어 오랑캐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의론이다. 지금 이른바 『灣上雜誌』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 많다. …… 박엽의 시 또한 여기에 보이니, 혹 다른 사람의 시를 훔친 것은 아닐까?⁵²⁾

51) 성해응, 『연경재전집 외집』 권 61, 「朴曄像」. “朴曄光海友婿也. 癸亥之反正, 曄預聞, 而金自點挾宿怨而殺之. 且忌其才也. 平壤人至今祀曄甚敬, 如德物山崔瑩祠, 其像在後孫, 貌短小, 美好如婦人, 精彩逼目, 不可狎視. 其家每當曝曬, 子孫婢使, 輒有痛者.”

52) 성해응, 『연경재전집 속집』 冊 15, 「題朴曄詩後」. “朴曄爲關西伯, 當己未深河之役, 見我師覆敗, 有詩曰, 延平嶺外是昌城, 殺氣連天鼓角鳴. 敗馬殘兵歸不

그 내용은 물론 성해응의 태도 또한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5]에서는 평양 사람들의 박엽 숭배가 개성에서의 최영 숭배와 같으며, 그의 초상화로 나타나는 그의 모습 또한 매우 신이로움을 소개하였다. 성해응의 태도는 자못 호의적이다. 반면 [6]에서는 박엽을 극단적으로 비하하였다. 결정적인 근거는 이민환이 지은 「柵中日錄」인데, 그 외 역사기록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⁵³⁾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듯 서로 어긋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 시점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출처의 차이일 것이다. [5]는 평양의 민간 계층에서 傳聞한 내용이고, [6]은 권력의 입장을 나타내는 기록에서 얻은 정보이다. 두 기록 사이의 모순은, 전승 계층 및 방식 사이의 대립이고, 이는 앞에서 다룬 역사와 야담 사이의 차이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차이이고, 이 차이에 내재된 갈등과 대립이다. 丹齋 申采浩는 일찍이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며 박엽에 대한 재평가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善惡을 勿論하고, 社會上에 무슨 勢力을 가졌었거나 影響을 끼친 人物이면, 그 事蹟을 事蹟대로 적어줌이 可 하거늘, 우리 역사에는 너무 실패한 인물을 박대하여, 연개소문이 唐書 때문에 전하고, 弓裔大王의 事實이 몇 줄이 못 되고, 근세의 鄭汝立 같은 이도 또한 일시에 걸출한 학자로되 그 一句의 遺文이 전치 못하니, 어찌 可惜하지 안하냐. 朴曄이 비록 人命濫殺의 大罪는 있다 할지라도, 其實은 庸劣한 帝王 將相의 一生에 직접 간접

得, 夕陽無限大江橫. 蓋亦悲憤感傷之意, 見於斯如此. 然深河之役, 糧餉自關西輸致, 而不能給, 士乃三日不食, 掘胡中窖所藏穀及牛畜而食之, 事在李民奩日記中. 孰謂曄有才能哉. 然則關西十年, 徒以刑殺立威, 而談者惜曄徑死, 不能禦胡, 殆過論也. 今所稱灣上雜誌, 多顛倒事實, …… 曄詩亦見于此, 無或他人詩竄亂歟.”

53) 深河戰役의 전말과 실상에 대해서는 그간 한명기(2001), 고윤수(2004), 이승수(2007)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박엽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가해지지 않았다.

으로 죽인 인명이 각기 천명뿐이 아닐 것이니, 어찌 홀로 박엽만 罪하며, 또한 그 죄로 인하여 그 天才的 對外手腕까지 엄폐함은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니냐, 설혹 전설과 같이 박엽의 對外才略이 모두 朴象羲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 받은 인물도 또한 庸才는 아닐 것이다.⁵⁴⁾

논자의 문제의식은 丹齋처럼 박엽에 대한 호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호감 뒤에는 인조반정에 대한 일말의 거부감이 놓여 있다. 따라서 가급 박엽에게 덧씌워진 역사의 죄목을 벗겨주고, 동시에 그에게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했다.⁵⁵⁾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평가를 전면 부정하고, 야담에서처럼 박엽을 비극적인 영웅으로 내세울 생각은 없다. 다만 역사 기록은 권력과 입장의 표현이고, 그것이 때로는 그 대상에 대한 폭력적 왜곡을 자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고착될 때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따라서 朴燁의 영웅적 행적을 내세우고 仁祖反正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논문의 주지가 아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식 기록과 주류 담론 외에도 인조반정과 박엽에 대한 견해들이 오랜 세월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이 또한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하나이며, 이 창이 기능을 복원할 때 역사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 박엽, 인조반정, 기록의 여러 층위, 다각적 역사 해석

54) 신재호, 「朴象羲」[『丹齋申采浩全集 下』(형설출판사, 1987) 333쪽]

55) 이것은 역사 해석 내지 세계 인식에 있어서 논자가 지닌 주관성과 편향성이다. 어떠한 史官이나 연구자도 이 주관성과 편향성(때로는 당파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연구자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우거나 가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 입장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논자의 입장과 태도를 밝혀 제현의 양해를 구하고 아울러 건강하고 창의적인 대화를 구한다.

참고문헌

『국역 광해군일기』, 『국역 인조실록』, 『국역 숙종실록』, 『국역 영조실록』(이상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탈초, 『승정원일기』(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逸事奇聞』(국역대동야승 제 14책)
 조경남, 『속잡록』(국역대동야승 제 8책)
 『醒睡叢話』, 『記聞叢話』, 『我東奇聞』, 『靑邱叢話』, 『閒居雜錄』, 『鷄鳴漫錄』, 『松泉筆譚』(심재) [이상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1집 (계명문화사, 1992)]
 具樹勳, 『野乘』 제 29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원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이궁익, 『국역연려실기술』(민족문화추진회)
 이덕무, 『국역청장관전서』(민족문화추진회)
 허균, 『국역성소부부고』(민족문화추진회)
 朴世堂, 『潘南朴氏世報』(국립중앙도서관)
 박엽, 『葯窓遺稿』(국립중앙도서관)
 박필주, 『黎湖集』(문집총간)
 성해응, 『연경재전집』
 申暲, 『直菴集』(문집총간)
 신채호, 『丹齋申采浩全集 下』(형설출판사, 1987) 333쪽]
 양경우, 『霽湖集』(문집총간)
 유몽인, 신익철·이형대 외 옮김, 『어우야담』(돌베개, 2006)
 이의현, 『陶谷集』(문집총간)
 이식, 『택당집』(문집총간)
 이안눌, 『東岳集』(문집총간)
 이호민, 『五峯集』(문집총간)
 차천로, 『五山集』(문집총간)
 채제공, 『樊巖集』(문집총간)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123,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4.1, 41~95면.
 이승수, 「深河戰役의 현장 조사 연구」, 『한국학논집』4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7.5, 337~362면.
 하상복, 「닥터로우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 공간」, 『현대영미소설』 11권 2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04, 1~17면.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224~301면.

홍만중, 안대회 옮김, 『對校譯註 小華詩評』(국학자료원, 1995)

홍찬유 옮김, 『시화총림』(통문관, 1993)

【국문초록】

朴燁(1570~1623)은 인조반정으로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다. 광해군의 인척인 데다 당시 평안감사로 군권을 지녔던 박엽은, 거사 직후 제거 대상 1호로 꼽혀 임지인 평양에서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죽임을 당했다. 반정 세력은 박엽을 청산해야 할 舊惡의 표상으로 지목했고, 구시대의 많은 不淨을 그에게 전가하여 자신들이 갈 새 길을 반듯하게 닦으려 했다. 새로운 권력의 붓끝에서 박엽은 역사의 죄인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반정 직후의 공식적인 논평은 물론, 국가 공식의 역사기록인 『인조실록』에 묘사된 박엽은 가혹하고 탐학한 부패 관료의 전형이다. 하지만 박엽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역사서 이외의 기록들은 주류 권력이 처놓은 감시망의 사각에서 발생되었거나, 여항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이념적 긴장감이 느슨해진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보관되다가 역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개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여러 층위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층위에 따라 기록 내용이 상반되거나, 최소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 기록으로 고정화 된 박엽의 모습이 해체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중 역사 기록과 상반되는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 해석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글은 가치 평가와 내용을 달리하는 박엽에 대한 제 기록을 통해,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폄하된 그의 역사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반작용의 운동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Abstracts】

**A study on Yackchang(藥窓) Bak Yeop(朴燁)
- With the focus on the historical valuation -**

Lee, Seungsu*

Bak Yeop(1570~1623)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victims of Injobanjeong. Because he was not only a relative of Gwanghaegun but also the Governor of Pyeongyang who was in control of the army, he was the number one enemy of the revolution troops. he was caught and killed without a trial in Pyeongyang where he was in line of duty. The revolution party pointed to him as a symbol of the evil group that should be rooted out. They tried to justify their coup d'etat by putting blame for all of the corruptions on him.

It was impossible that Bak Yeop could avoid being killed by the new power group. he was described as one of the worst corrupt officials in both the official statement soon after the revolution and Injosillok which was the official record of history. However, they were not all about him.

Other records were written outside of the surveillance of the mainstream power group, or written years later when ideological tension became loose after being passed on to next generation by word of mouth, or unveiled when political circumstance had been changed after being preserved unofficially in secret.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different records in a variety of levels, but the fact that the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diverse enough to complement each other. It

* Lecture, Hanyang University.

means that we could interpret Bak Yeop in another way different from the fixed character in the official history book.

In particular, there are records in opposition to the official record. if these records could secure a kind of truth, it would be critically meaningful in interpreting the history. Through this report, I tried to seek a new way to revalue Bak Yeop's role in history, which has been depreciated by his political enemies, and review a mechanism of establishment of power and a counteraction against it.

Key Words : Bak Yeop(朴燁), Injobanjeong(仁祖反正), the many horizons of record, multilateral interpretation of history.

이 논문은 2007년 10월 1일에 접수되어 12월 12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